

韓國服飾美의 研究

— 禮儀觀과 表現美를 중심으로 —

승의여자전문대학 의상과
부교수 金榮子

目 次	
I. 서론	IV.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미
II. 예의관과 복식미	V. 결론
III. 체형의 발견과 복식미	참고문헌

I. 서론

미는 시대 정신의 역사성을 갖춘 독특한 양식이 담겨 있으며, 지역적 풍토성에 따른 삶의 구조적 의미가 예술적 표현성으로 투영되어 있다. 전통 복식으로 한국 복식은 이 땅 위에서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입어온 고유한 민족복으로 생활상의 미적 표현이 담겨 있는 우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며 이 아름다움은 그대로 우리의 미의식에서 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한복의 고유성으로 느껴지는 미적인 요소는 우아함이나 부드러움으로 말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복의 외형적인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미적 공감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진정한 우리 복식의 미를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것은 다만 부분적인 대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 좀 더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 복식의 미적 측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한국 복식의 조형미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한국 복식미로 나타나고 있는 요인을 정신적인 측면에 두고 이로 인하여 표현된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이며, 둘째는 이를 통하여 감상적으로 말하여지는 한국 복식의 미를 학문적인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한국 복식미의 역사적인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괄하고자, 벽화를 통해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문헌적으로 최소한 확인이 가능한 고구려시대를 기점으로 조선시대까지 시대적 범위를 잡았다.

복식은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그 시대의 독특한 미의식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명칭이 바뀌거나 년대가 바뀌었다고 금을 굿듯이 일시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화의 모습이 생기고 또한 스스로 전통적인 것을 수용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적 양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변화에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역사적 문헌의 기록을 실증 자료로 하고, 여기에 회화로서 확인하여 미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바탕과 더불어 시각적인 조형미와 연결하여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접근하고자 한다.

또 이 논문에서는 관념적인 한국 복식의 미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건들을 찾아 확인하고자 크게 세 개의 줄기를 잡아 보았다.

첫째는 의복의 미적 특성이 표현될 수 있었던 정신적 표현의 의지를 찾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인 제도와 관습으로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예의관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을 살피고,

둘째는 이러한 관점이 사회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찾아보는 가운데 복식의

분위기를 묘사한 상황적인 내용을 통하여 복식의 미적 가치개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필자의 先行研究로, 1987년에 발표된 저서 「韓國服飾美의 研究」¹⁾에 기초를 두었으며 그곳에서 다루지 못한 정신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는 작업의 일환이다.

본 논문은 제한된 지면관계로 충분한 전달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독자의 이해를 바란다.

II. 禮儀觀과 服飾美

1. 概 觀

의복의 물질적 미적 측면은 이것을 만든 인간의 미의식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온 문화적인 양상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제반 문제 속에서 복식의 미로 인식할 수 있었던 요소를 찾아 이것이 복식과 관련된 의미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틀이 되었던 예(禮)의 문제는 생활 전반에 걸쳐 형식과 표현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복식을 통하여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식이나 표현성이 이 예사상에 바탕을 두었음을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의복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기서 한국적인 의복의 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의 예의사상을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대략적으로 고찰하였고, 다음에는 예의관으로부터 표현된 복식을 크게 두 가지의 맥으로 잡았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통적인 통과 의례복으로 특정한 날, 일정한 격식에 의해 착용되는 관혼상제의 복식이다. 둘째는 계층을 달리하여 착용하는 신분 복식이다. 이런 신분 복식의 실행은 역시 개인의 의사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위로는 겸손과 직책의 의미를 아래로는 직위의 표시로 신분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상하 계층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되며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2. 예의 사상이 복식에 표현된 미적 특성

예의 사상이 복식에 나타난 아름다움은 몇가지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의복자체의 물질적인 조건을 보면, 의례복이나 신분복식 모두 크고 넓은 것을 선호하였던 점이다. 신체보다 길고 넓은 것은 지배적인 관념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지는데, 큰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았던 관점에서 권력이 있는 상층이 관할한 의복을 입었다고 본다. 또 의례복의 관할함은 의식 자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장중한 분위기에 맞게 선택된 것이며 인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예의 의미로 생각하였던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복은 여러 가지의 겹침으로 인해 풍성함을 즐겼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고, 들어내지 않는 겸손의 마음가짐은 감추는 것을 예의로 보고 또 미적 가치로 생각하였던 점이다. 그래서 행동이 요란하지 않으며 표정이 조용하고 절도가 있기 때문에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격식이 있고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정적이며 우아한 자세로 표현된다.

흔히 한복은 우아하다.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말하지만 실지 의복을 입고 서양사람과 같이 활개치고 걸었을 때의 한복의 미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단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복과 사람의 행동이 합하여 이루어지는 내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기(禮記)」에 “군자가 옷을 입을 때에는 군자의 용모를 정제하고 이를 장식하여 아름답게 하며”²⁾라고 하여 그 의복을 입었을 때 용모로서 꾸미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예기」 옥조(玉藻)에 “군자의 용모는 점잖고 조용해야 하고 웃어른을 뵈면 공손해야 한다. 발은 무겁게 가지며 손의 모양은 공손하며 눈은 바르고”³⁾라고 하여 태도의 진중하고 단정함을 말하고 있다. 또 서 있는 모습에 대하여 「곡례(曲禮)」에 “어린이는 서 있을 때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고, 머리를 기울게 하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여 곧은 자세를 말하고 있다.

머리를 두는 것에 대하여 “턱을 고정하고 똑바로 보여 어깨를 평평히 하며 등을 바르게 하며, 얼굴을

1) 金英子, 韓國服飾美의 研究, 韓國研究院, 韓國研究叢書, 57, 1987.

2) 禮記, 表記 第三十二 「最故君子服其服則文以君子之容」.

3) 禮記, 玉藻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단정히 하며 다리를 단정히 하며”라고 하였다.

또한 “자리에 앉을 때 두 손으로 옷을 들어 올려 아랫단이 1자 가량 하라. 옷자락은 펄럭거리지 말게 하고 옷을 흔들어 펄럭거리서도 안된다. 발을 끌면서 걸을 때는 발을 들지 않고 가지런히 물 흐르듯이 한다. 또 “발끝은 조금 들고 발꿈치는 땅에서 떼지 않고 미끌어지듯 하면서 하의(下衣)의 아랫단이 물흐르듯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태도를 이르고 있다. 이런 예의적인 의례 양식이 복식에 표현된 특징을 몇가지로 살펴본다.

1) 격식미

예의는 자체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격을 갖추는 격식미가 의복에 있다. 이 경향은 특히 의례 복에 짙는데, 예복의 형태가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하더라도 의복이 크기 때문에 불림이 있고 또한 선이 굵게 느껴진다. 따라서 엄숙하고 장중한 맛이 난다. 의례복식은 여러 가지 의복을 겹쳐 입으며, 입는 방법이나 종류에 있어서도 의미를 갖고 착용되어야 하는 격식의 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규제된 절도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2) 단정미

예의는 인간이 행동으로 표시하는 대(對)인간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규칙이 있고 모범적인 맛이 난다. 더우기 예의는 정중한 마음의 표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몸가짐으로 행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표현되는 느낌은 자연히 단정하고 규범 있는 미를 표현하게 된다. 문학작품에 복식의 미를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어휘를 많이 쓴 것은 이러한 모습을 미적인 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또 단정함이 미의 기준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예를 중히 여기는 생활의식에서 나타난 미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적미

예의 표현은 서두르거나 경박하지 않고 사려깊은 자세에서 행동은 여유와 품위를 지키면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겸손한 자세와 부드러운 움직임은 요란한 외형적인 표현보다는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의복을 갖추어 입은 자세는 정적인 미로서 표현된다. 요란하지 않으며 안으로 숨어드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맛이 한국의 미라

하겠다.

Ⅲ. 체형의 발견과 복식미

1. 概 觀

의복은 사람이 입는 한 체형에 입각한 모양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밀착한 것이든 넓은 것이든 어깨에 걸쳐지거나 허리에 걸쳐져서 몸을 감싸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 의복은 기본적으로 은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글에서 은폐와 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우선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로인크로스(Loin Cloth)를 입은 모습을 보면, 신체 일부를 은폐시킨 것이 되지만 이 위에 덧입은 상태에서 입었던 겹옷을 벗으면 로인 크로스의 차림도 노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우리 복식의 노출의 의미는, 오랜 생활 동안 기본적으로 착용되어 오던 의복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일정 기간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여던 형태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의 단소 경향과 또한 넓이의 축소는 의복이 좁아지는 것과 더 나아가 꼭 끼게 입는 것을 의미하며 체형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꼭 맞는 체형에 의한 노출의 의미와는 역으로 체형을 가리는 것에 의하여 오히려 심리적인 노출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필자는 은폐속의 노출이라고 본다. 또한 의복은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인체가 의식되는 옷매무새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 복식의 체형을 의식한 표현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전개하였다.

먼저 우리 복식에서 저고리가 극도로 짧아지는 조선 중·후기를 중심으로 이 시기를 체형을 의식한 표현성의 시기로 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지게 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체형을 의식한 의복의 상태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첫째는 짧아지고 좁아지는 경향을 역사의 사실적 기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면서 시각으로 확인되는 회화로 그 의미를 파악하였고, 둘째는 겹쳐 있는 착의 방법에서부터 점차 단순화로 되어지는 것을 내의(內衣)의 외의화(外衣化)에 의해 노출도 고찰하였다.

2. 체형의 발견과 복식미의 특성

가리워진 인체,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이를 노출하고 싶어한다. 형식적인 제약에 의해 가리워진 본능은 언젠고 분출되어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복식은 관념에 의한 도구적 표현성이 강한 편이었다 한다면, 점차 근대에 이르면서 자유스럽게 표현되는 양상으로 바뀌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백성은 생활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복은 항상 가장 보수적이고 계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유행과 무관한 기본 의복을 입게 마련이다. 이들의 의복에까지 자유스러운 변화의 여파가 미치려면 대중적인 개방의 흐름이 작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복식 변천에서 실학의 대두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사상적인 변화는 개방과 실용, 검소, 계층의 평등 이러한 것들의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의복도 심리적인 미적 욕구가 제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체형의 새로운 발견이다. 체형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적인 미적 본능은 내의의 형태가 외의적인 노출로 나타나고, 이러한 가운데 허리에 가장 미의 관점을 두고 이 부분을 의식하였으며, 따라서 상체는 긴박하고 하체는 상대적으로 부풀리어 대비되는 극적인 미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여기에 입는 방법은 간접적인 체형의 형태를 의식하도록 연출하였으며 각기 입는 사람에 따라 개성이 나타나는 미적 표현성이 있었다고 본다.

우선 옷을 입은 매무새에서 미적인 특징을 찾아볼 때, 옷의 모양은 의복의 형태와 의복을 입는 방법과 또한 입는자의 모습을 통하여 미가 나타난다. 그래서 옷을 입어 맵시가 있을 때 옷걸이가 좋다고 하여 사람의 표현성으로 나타나는 미를 말하기도 한다. 특히 한복은 같은 형태를 누구나 입기 때문에 입는 맵사에 따라 미가 연출된다.

조선 후기의 치마 저고리는 상체는 좁고 하체는 길고 넓은 구성을 이루는데 즉, 상박하후(上薄下厚) 또는 상단하장(下短下長), 상협하광(上狹下廣)의 외형 실루엣을 이룬다. 이 형태는 상의를 꼭끼게 입는 반면에 허리 아래에 여러 가지 속옷을 받쳐 입음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

다. 이것은 극적인 대비의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상체는 긴박하므로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나타나는 입체감이며, 반대로 하체는 과장되게 부풀리므로 완전히 은폐되어지면서 느낄 수 있는 반대적인 효과에 따른 체형 의식이다.

여기에 입는 속옷은 추위를 위한 위생상의 보온의 목적이 아니었음은 이것을 여름에도 입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치마 속에 입는 부풀림의 역할을 하였던 무지기 치마의 존재, 단속곳과 바지를 입는 등, 이러한 것들을 입으면 속옷의 겹침으로 이루어지는 실루엣은 하체가 둥그스름하게 된다.

또한 입는 방법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독특한 미로 연출되는데, 치마를 입은 채 그대로 풀어 놓으면 넓고 안정되며 품위가 있는 중후한 자태가 되지만, 뒷가닥을 앞으로 잡아당겨 앞가슴으로 오게 잡으면 몸맵시가 드러나면서 둔부 이하부터 다리 이하로 차츰 좁아지는 실루엣이 된다. 따라서 이 모양은 인체의 외형적인 곡선이 그대로 표현된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성미가 드러나는 맵시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의복의 미는 허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옷을 입는 매무새도 체형을 의식한 미의 표현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면 조선 중후기는 복식의 미의 표현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징이 더욱 나타난 시기로 보며 상층을 향하여 미의 전형이 내려 퍼지던 시기에서 하층의 구조가 미를 형성하는 대중적 미의 시대적인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본다.

IV.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미

1. 概 觀

문학작품은 시대의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고백이며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의식이 담겨 있고 풍물이 묘사되어 있는 파노라마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 복식의 차례 사설은 의복의 종류 뿐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있는 총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당시의 미적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그 시대에 언어적인 표현으로 미를 말하고 있어 미적 가치를 어디에 두었으

며, 그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하여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증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국인의 복식에 대한 전통적인 미의식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원용된 자료는 19세기의 「한양가」와 「잡가」(雜歌) 그리고 「신재효 판소리 사설」을 살펴보고, 소설로서 내용이 담겨 있는 18세기의 「춘향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여기에 18세기 「한중록」과 17세기 「허난설헌」 시집의 복식에 대한 표현을 찾아 보았다.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복식을 잘 갖추어 입은 상태의 미적 현상과 갖추지 않은 상태의 추(醜)한 상황을 통하여 복식미의 대립적 표현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복식미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의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제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정신적 조건」, 「용모의 조건」, 「자태의 조건」, 「의복 표현」의 조건으로 나누어 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미의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2. 작품에 표현된 복식미의 특성

고찰한 대상의 작품 성격은 서민을 중심으로 한 선(善), 악(惡)의 대립적 의미를 깔고 있는 관계로 표현성에 있어서 일면 치중되어 있는 점도 있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서 표출된 미적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을 어휘로 정리하는 가운데 그 용어에 함축된 개념이나 가치관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복식미 특징을 분류하였다.

맵시…… 맵시는 사전적인 표현으로 “곱게 매만진 모양”이라고 있다.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한 모양새를 말한다.⁴⁾ 맵시 있다는 말은 특히 춘향전과 한양가에 많이 나온다. 신재효 판소리에는 남창

춘향가에서 광한루를 떠날 때 채비를 하는 방자를 맵시 있다고 하였고, 남원에서 서울로 떠나는 향단의 차례를 보고 “맵시 있는 우리 향단 고운단장 새 의복에 전모쓰고”⁵⁾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하층이지만 맵시 있다 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화려한 고급스런 의복차림에 기준이 아니고 갖추어야 할 의복을 입은 모습과 아울러 그 신분에 알맞는 모습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군의 모습을 맵시 있다고 하였으며, 열 읍수령 모인 자리의 좌상이 맵시로 들어와서 다담상을 올리 적에 라고 있고,⁶⁾ 관원의 맵시는 한양가에도 “맵시 있는 전별감은 이팔청춘이다.” 하고⁷⁾ 또 “별감의 거동보소 난별감 백여명이 맵시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⁸⁾라고 하여 관아의 복식의 맵시를 거들고 있다. 여기에 “밀화장도 옥장도 안밖으로 비껴차고 삼승버선 수늻대서 맵시 있게 신고 안동상전 수운혜를 맵시 있게 신어두고”⁹⁾라고 맵시를 거들었다. 이들 이외의 상층의 이도령과 춘향의 맵시를 보면 춘향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대목에 맵시 있게 생긴 아이라고 하였으며 이도령의 의복차림은 “도련님의 감사뎡기 끝만 물려 맵시 있게 늘여지고”¹⁰⁾라고 하였고, 기녀의 자태를 “나군 두른 허리 맵시 있게 걸어안고”라고 하였다.

이 맵시란 용어는 옷맵시로서 의복과 결부되지만, 우선 그 어원을 본다면 맵다, 맵싸하다 등의 미각적 어휘가 미적 용어로 전이된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보통 쓰는 어휘 매무새라는 말이 있다. 이 때는 옷을 단정히 맷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옷맵시는 옷을 정갈하게 단정히 입고, 젊은이는 젊은이 다웁게, 노인은 노인다웁게 입는 것이 이 맵시 있게 입는다는 말로 통괄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는 남녀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의복뿐만 아니라 용모의 단정도 포함한 형태의 심미적인 용어인 것 같다.

고움…… 「고움」은 「고운」이나 「곱다」라는 동사

4) 이희승, 국어사전, 민중서관, 1977, p. 509.

5) 姜漢永, 畧書, p. 79.

6) 畧書, p. 81.

7) 朴晨義, 畧書, p. 87.

8) 畧書, p. 129.

9) 畧書, p. 131.

10) 具滋均, 畧書, p. 295.

로 표현되며 이 의미는 결이 부드럽고 거칠지 않은 의미가 있다. 춘향을 대상으로 한 미적 표현에서 “난초같은 고운 머리”라고 하고 얼굴 모습을 “월태 화용(月態花容) 고운태도” 또는 “자하상 고운 태도 염용하고 앓은 거동”이라 하여 잘 정돈된 부드러운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 뿐 아니라 남자인 이도령에게도 쓰이고 있다. “백옥같은 고운 얼굴 분세수 곱게 하고” “시시오불 하던 주랑의 고움이니”라고 하여 잘생긴 모습을 형용하는데, 남성임에도 백옥같은 고운 얼굴이라 하여 결이 고운 것을 미남으로 보고 있다. 또 “반악(潘岳)의 고운 풍채”라고 하여 결이 곱다든가 살결이 곱다라는 의미와는 달리 자태가 곱다라는 것으로 품위가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곱다라는 것은 외모의 의미와는 달리 자태가 곱다라는 것으로 품위가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곱다라는 것은 외모의 부드러움 뿐 아니라 내면의 선한 마음이라든가, 진·선·미가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미적 현상을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어휘가미를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미적 심성이 부드러움을 즐겨하였던 것에도 원인이 있으리라 보이며 이것이 의복의 미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단정, 태, 새…… 고운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하면서 이것을 단정함에 기준을 둔 것이 많다. 춘향전에서 “미양 가는 벼들 힘이 없이 드리운듯 아름답고 고운 태도 세류같은 몸을 단정히 노니는데”라고 하여 연약한 듯한 부드러움과 정숙한 행동이 포함된 모습에서미를 두고 있다. 또한 춘향모의 자태를 두고 “단정한 거동이 표표정정(表表亭亭)하고”라 하여 절도 있는 자태와 정돈된 차림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기에 태가 난다고 하였는데, 이 태(態)란 모양새를 말하며 모양이 난다는 것은 외형에 미적 가치를 두고 있으나 의복을 입은 사람의 인격이 의복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되면서 우러나오는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가 난다라는 어휘도 외양의 모습에서 내면이 결으로 잘 흘러져 표출되는 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호사, 장(裝)……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말에 호사하다는 것과 장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 호사는 그 신분에 넘치는 성장을 하였을

때에 쓰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로 보아 값진 것을 갖추었을 때에 호사한다는 것을 쓴다. 이도령의 차림을 두고 “호사하다”라고 한 것은 그의 신분 에 따라 여러 가지를 잘 갖추어 입은 것에서, 이런 호사한 것으로 말하고 따라서 아름다운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본시 귀한 것은 가치를 두게 마련이며 이 가치는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시각적인 미적 가치를 동반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하다는 표현은 관아의 무리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보고 “위의도 장할시고 주석고리 어른 호기 있게 내려올제”라 하여 당당함의 기세가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고 다시 장하다고 하여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신분에 알맞는 태도와 갖춤에서 표현된 미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복식의 미적 기준은 그 신분에 알맞는 차림과 더불어 내면에 인격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나오는 태도를 아름다움으로 보았으며 이 아름다움은 꾸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에서 찾았다고 본다. 그리고 미적인 표현성으로는 맵시와 고움, 단정과 태, 새, 호사와 장(裝)으로 대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드러움과 깔끔함을 통하여 단정한 차림새를 아름다움의 감흥으로 취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결 론

미에 대한 가치 개념은 생활관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과, 시대의 여건에 따라 달리 성립되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미에 대한 가치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한국 복식의미를 찾아 보았다.

미의 개념에 대한 전의(轉義)를 동서양을 살펴볼 때 서양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객관적일 수도 있으나,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선(善)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 미 개념에서 유교적인 사상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공자에 의하면 미와 선을 같이 보아, 선한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표현되는

내적인 미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하였다.

복식의 조형적인 조건인 재료, 색, 문양 등의 의복의 미를 이루는 복식미는 그 시대의 복합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미의식의 특성에 의한 것임을 역사적인 기록의 실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禮)에 입각한 사회 제도적인 면을 복식에서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였는데, 하나는 생활 관습적인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행하는 관혼상제의 의례복식과, 하나는 신분의 등위를 구별하여 이를 스스로 지킴으로 예를 다하는 신분복식이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호화롭고 사치한 상층의 복식을 따르고자 하는 복식심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미의 관점이 스스로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규정된다기 보다는 예의적인 관점에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삼강오륜적인 사상교육에 따라 여성이 헌신하는 정신을 길러주고, 이는 결국 여성으로서 가족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스스로 느끼고, 행복을 의복의 정성스런 제작을 통하여 얻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만들어진 정성의 결정체가 의복이었으며 따라서 한복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표현되어진 것이라 본다. 이로서 표현된 미적 특성은 정적이고 단정한 미와 품위 있는 행동과 조화된 우아함이다.

특히 의복에 공통점은 모두 관활(寬濶)하며 의례복은 격식을 갖추는 요소 중에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입는 방법이나 의복의 구성 등이 절제된 형식이 있다. 그리고 예를 행함에 있어 마음가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단정함이나 규범적인 미가 있고 또한 사려깊은 행동과 품위 있고 여유 있는 태도에 의해 정적인 미가 있다. 신분으로 구별된 복식의 미적 가치는 대체로 상층의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상층계의 복식에 특징인 크고 넓은 형태와 색의 등위 개념 그리고 문양에 크고 작음에 대한 장식성의 의미가 미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한복의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형태의 변화는 약간씩 있었으나 몸을 가리는 은폐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의복의 단순화 또는 축소화 그리고 노출 현상이다. 이것을 필자는 한복의 역사상 체형을 의식한 복식 착용의 시기라고 본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실용과 과학, 계급의 타파 등을 부르짖고 대두되었던 실학사상에 연유된 문화적인 변화의 일면이라 하겠다. 저고리가 극도로 짧아지는 현상은 본능적인 노출의 미가 은폐의 제약을 벗어나는 혁신이며, 속에 입던 저고리가 겹저고리가 됨은 중복성에서 단순화로 이행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격식의 틀을 사회의 조류에 힘입어 실현한 자연스런 미적 추구라고 본다. 이것은 개성의 미가 중요시된 시기이며 또한 상층을 향하여 미의 전형이 형성되던 시기로부터 하층의 구조에서 미가 형성되는 대중적 확산의 시기로 보았다.

체형을 의식한 미적 표현의 부위는 특히 허리부분으로 인식되는데 허리를 중심으로 저고리가 짧아지는 현상은 오히려 상체를 긴박하고 하체는 상대적으로 부풀리어 대비되는 극적인 미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옷매무새는 입는 사람의 입는 방법이나 입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치마 뒷꼬리는 앞으로 잡아당기면 고풍적인 몸매의 들어남이, 옷으로 가리워진 은폐 속에 노출을 의미하고 치마를 풀어 놓으면 중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생긴다. 이와 같이 의복의 미적 표현을 체형에 두었음은 복식미의 새로운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실제 과거의 복식을 두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문학작품의 내용을 통하여 미적 감정을 파악하여 복식미의 실증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복식의 외형적인 미와 더불어 정신적인 내면으로 나타나는 미적 가치는 비록 남루하고 추한 외형을 갖추어도 미로 만아들일 수 있는 미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미는 인간의 정신과 이를 나타내는 행동과 용모가 의복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었을 때 복식의 미적 표현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정신은 선한 마음이며 행동은 겸허하고 성급하지 않고 걸을 때는 천천히 걸고 여유 있는 거동을 하며, 용모는 바르고 단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념은 한복의 형태적 특성과 조화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즉 한국인이 입은 한복의 맛(멋)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 복식미의 특징은 한국이라는 풍토적 특성에서 시대적인 사회제도에 따라 제한되고 다시 개방이 되는 교차 속에서 드러났는데, 여기서 한국인의 개성적 정신이 미의식으로 형성되어 표현된 자연스러움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인 요소는, 소박함으로 또 부드러움으로 나타났고, 그러면서 안으로 함축된 정신미는 단정하고 고움으로 표현되어 깔끔한 맛을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한번 걸러 멋으로 표현되어지는 정신적인 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金富軾, 三國史記.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徐 兢, 宣和奉史高麗圖經.
 昭惠王后, 內訓.
 宋文欽, 閑靜堂集(奎章閣本).
 燕行錄選集.
 劉敬鍾, 增正懸吐山林經濟.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敬稿.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肯翊, 燃黎室記述.
 李德懋, 青莊館全集.
 李晬光, 芝峯類說.
 李裕元, 林下筆記.
 李 漢, 星湖僊說.
 李 締, 四禮便覽.
 一 然, 三國遺事.
 丁若鏞, 牧民心書.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서울, 1973.
 金東旭, 百濟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院, 서울, 1985.
 金東旭, 新羅의 服飾, 신라문화 선양회, 경주, 1979.
 金元龍, 韓國美의 探究, 悅話堂, 서울, 1981.
 金元龍, 「壁書」, 韓國美術全集, 4卷, 同和出版公社, 서울 1974.
 高裕燮, 韓國美術史 및 美學論攷, 通文館, 서울, 1979.
 _____, 韓國美術文化史論叢, 通文館, 서울, 1974.
 金正基, 韓國木造建築, 一志社, 서울, 1987.
 姜大석, 美學의 基礎와 그 理論의 變遷, 서광사, 서울, 1987.
 金榮子,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攷,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7.
 유희경 外, 韓國服飾의 美, 韓國研究院, 1987.
 姜萬吉 外 2人, 韓國의 實學思想, 삼성출판사, 1983.
 具滋均 校註, 春香傳, 韓國古典文學大系, 10, 민중서관, 1983.
 姜漢永 校註, 申在孝 관소리 사설集, 韓國古典大學大系, 8, 교문사, 1984.
 金東旭, 林基中 編, 歌集, 太學社 서울, 1982.
 權五惇, 禮記, 弘新新書, 서울, 1976.
 金星元 校閱, 小學集註, 明文堂, 1986.
 金文煥 編著, 現代美學의 向方, 悅話堂, 1985.
 朴京子, 韓國服飾攷, 新丘文化社, 서울, 1983.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국, 서울, 1979.
 _____, 美의 思索, 서울대학교출판국, 서울, 1982.
 _____, 美의 藝術과 人間, 계몽사, 서울, 1988.
 朴晟義 校註, 漢陽歌, 韓國古典文學大系 7, 민중서관, 1974.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서울, 1971.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教文社, 서울, 1982.
 _____, 韓裁, 世宗大學出版部, 서울, 1981.
 성경린, 韓國傳統舞蹈, 一志社, 1988.
 徐英淑, 피복재료 관리, 형설출판사, 1978.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韓國古代의 道教思想, 汎洋社, 1987.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出版部, 서울, 1975.
 尹絲淳, 韓國儒學思想論, 열음사, 1988.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4.
 李丙燾, 韓國儒教史,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 滉 外, 韓國의 儒學思想, 三星出版社, 1987.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이병도, 한국 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문문고, 1973.
 윤태림, 韓國人, 현암사, 198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 任東權,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 리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고대편, 교양국사 총서, 서울 1978.
- 張文戶, 服飾美學, 世運文化社, 서울, 1975.
- 趙要翰, 藝術哲學, 經文社, 서울, 1982.
- 장지혜, 피복재표 I, 中央機能啓發研究社, 서울, 1982.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일지사, 1988.
- 趙芝薰, 멋의 연구, 韓國人科 文學思想, 一潮閣, 1968.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東明社, 서울, 1948.
- 崔鉉培, 朝鮮民族更生の道.
- 崔淳雨, 韓國繪畫 3, 陶山文化社, 1981.
- Wladyslaw. Tatark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 Noram Hollen Jame Saddler Anna L. Langford, Textiles fifth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Jowiley & sons, 1965.
-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orbis Publising London, 1980.
- Wladyslaw, TaTarkiewicz, History of Aesthetic, I, II, III,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1970.
-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London, 1974.
- Bernard Berenson, Aesthetics and History, Pantheon Books, 1948.